

2026년 9월 박상훈, 조미선,
박강이 가정의 케냐 선교 소식



마태복음 13장 31-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갓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기도제목

1. 어린이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전도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시험을 앞둔 9학년과 고3학생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선생님들이 말씀에 더욱 마음을 두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며, 성령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저희 가정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도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책자를 들고, 마을을 나설 때마다 전도하는 각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꿈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어린이 예배



➤ 중고등부 예배



9월부터 10월 말에 있을 KJSEA시험(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 9학년들을 위해서, 11월 한달 동안 치루게 될 KCSE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Form4(한국의 고3 친구들) 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Group Home



여자 그룹홈의 아이들을 튜션해주었던 벤타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교육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꾸며, 1년간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케냐 청년답지 않은 성실함과 정직함이 돋보인,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었지요.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리던 벤타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져서 참 귀한 청년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벤타 선생님이 꼭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큐티 모임



어느새 4개월이 되어가는 큐티모임이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큐티는 하지만, 함께 모여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에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혼자서 큐티를 하는 것만으로 대견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